

Sermon: What should we seek first?

■ 오늘의 본문말씀 : 마태복음 6:33 & 34

Today's main verses are Matthew 6:33 & 34:

『Matthew 6:33-34』³³ *But seek ye first the kingdom of God, and his righteousness; and all these things shall be added unto you.* ³⁴ *Take therefore no thought for the morrow: for the morrow shall take thought for the things of itself. Sufficient unto the day is the evil thereof.*

『마태복음 6:33-34』³³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³⁴ 그러므로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이 자기 것들을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악은 그 날에 족하니라.

1 Introduction 서론

Today is the first Sunday of 2019. 오늘 2019년의 첫 번째 일요일입니다.

As most of you know, 2019 is “the Year of the Pig,” according to the twelve zodiac signs in Chinese astrology. 아시는 것처럼, 2019년은 중국 점성술의 십이지신의 순서에 따라 돼지 해입니다.

The Pig is the twelfth of all zodiac animals. 돼지는 십이지신의 동물에서 열 두번째 해에 해당합니다.

According to one myth, the Jade Emperor said the order would be decided by the order in which they arrived to his party. 우화에 따르면, 제이드 황제가 순서를 동물들이 축제에 도착한 순서대로 하도록 분부했다고 합니다.

Pig was late because he overslept. 돼지는 늦잠을 잤기 때문에 늦었습니다.

Another story says that a wolf destroyed his house. 또 다른 이야기에 따르면 늑대가 그의 집을 부수었다고 합니다.

He had to rebuild his home before he could set off. 돼지는 출발하기 전에 자기 집을 다시 세워야 했습니다.

When he arrived, he was the last one and could only take the twelfth place. 그는 제일 마지막에 도착해서 열 두 번째 자리를 차지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With this being said, in Chinese and Korean cultures, pigs are the symbol of wealth. 그건 그렇고, 중국과 한국 문화에서, 돼지는 부의 상징입니다.

Their chubby faces and big ears are signs of fortune as well. 돼지의 오동통한 얼굴과 큰 귀는 재물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So, a dream of pig means wealth or luck in the life of local Koreans. 그래서 돼지 꿈은 한국 사람의 삶에서 부나 행운을 뜻합니다.

As many other Asian people Koreans hail the year of pig as a PROSPEROUS year among other 12 animal gods on the Chinese Zodiac. 다른 아시아 국가 사람들처럼 한국인들은 중국 점성술의 십이지신 가운데서도 돼지의 해를 번영의 해로 칭송합니다.

Further, Korean people are excited about the coming of the year of pig as the year 2019 is not ordinary one but a very special year of pig, “the Year of the Golden Pig,” which comes every 60 years. 더우기, 한국 사람들은 2019년의 돼지 해가 보통의 돼지 해가 아니라, 60년에 한 번 오는 황금돼지 해라고 흥분하고 있습니다.

Even if this year would not be “the Year of the Golden Pig,” 올해가 황금돼지 해가 아니었다고 해도,

at the beginning of the new year people always make plans, hoping that they would be more prosperous during the whole year than ever. 새해 벽두에는 사람들은 올 한 해가 어느 해 보다 더욱 번창하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계획을 세웁니다.

I really want all members of IIBC to be more prosperous in 2019. 저는 IIBC의 모든 교인들이 2019년에 더욱 번창하기를 정말 바랍니다.

However, I really want you to know exactly what is the first thing we should seek this year. 하지만, 저는 올해 우리가 제일 먼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정확히 알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Now I will therefore speak to you the message entitled “What should we seek first?” in order for all members of IIBC to know the sound doctrine of sanctification and live a Christian life acceptable unto God.

(Titus 2:1) 따라서 저는 오늘 IIBC의 모든 교인들이 건전한 성화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성도의 삶을 사는 것에 대한 바른 교리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첫째로 무엇을 구해야 하나?”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 Let's pray ***

Heavenly Father, thank you so much for giving us a new year and good fellow Christians to worship you here together. I really beg you that you let us know how to live a good Christian life or what we should seek first this year. In Jesus' name I pray. Amen.

2 Background 배경

The title of today's message is “What should we seek first?” 오늘 설교 제목은 “우리는 무엇을 제일 먼저 추구해야 하는가?”입니다.

I am sure that most of you know the answer to this question. 대부분은 이 질문의 대답을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Yes, it is Matthew 6:33.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6:33절에 나와 있습니다.

“But seek ye first the kingdom of God, and his righteousness; and all these things shall be added unto you.”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As such, we should seek first the kingdom of God and his righteousness.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제일 먼저 구해야 합니다.

However, not a few Christians don't know the exact meaning of this verse. 그러나, 많은 성도들은 이 구절의 정확한 의미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One of the most important principle of interpreting the Bible verse is that its meaning should be found IN CONTEXT. 성경 구절을 해석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원칙은 문맥 가운데서 의미를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So in order to let us know the precise meaning of Matthew 6:33, I will do expository preaching on Matthew chapter 6 verses 19 through 34.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6:33절의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있도록,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 까지 강해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I will read Matthew 6:19-21. 마태복음 6:19-21절을 읽겠습니다.

『Matthew 6:19-21』¹⁹ Lay not up for yourselves treasures upon earth, where moth and rust doth corrupt, and where thieves break through and steal: ²⁰ But lay up for yourselves treasures in heaven, where neither moth nor rust doth corrupt, and where thieves do not break through nor steal: ²¹ For where your treasure is, there will your heart be also.

『마태복음 6:19-21』¹⁹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라. 거기서는 좀과 녹이 부패시키며 거기서는 도둑들이 뚫고 훔치느니라. ²⁰ 오직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 거기서는 좀과 녹이 부패시키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도둑들이 뚫지도 훔치지도 못하느니라. ²¹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Jesus explains very clearly how to deal with our treasures. 예수님은 우리가 보물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아주 분명하게 설명하십니다.

I will read verse 21 once again. 2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For where your treasure is, there will your heart be also.”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It is true that treasures are laid up in heaven when treasures are forsaken on earth. 이 세상에서 보물을 포기할 때, 하늘에 보물이 쌓아진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And this is the introductory explanation of how to seek first the kingdom of God and his righteousness. 그리고 이것은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는 것에 대한 기초적인 설명이 됩니다.

Let's continue to read verses 22 & 23. 계속해서 22절과 23절을 보겠습니다.

『Matthew 6:22-23』²² The light of the body is the eye: if therefore thine eye be single, thy whole body shall be full of light. ²³ But if thine eye be evil, thy whole body shall be full of darkness. If therefore the light that is in thee be darkness, how great is that darkness!

『마태복음 6:22-23』²² 몸의 등불은 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단일하면 네 온 몸이 빛으로 가득하되 ²³ 네 눈이 약하면 네 온 몸이 어둠으로 가득하리라. 그런즉 네 안에 있는 빛이 어둠이 되면 그 어둠이 얼마나 크겠느냐!

Scripture says, if therefore thine eye be single, thy whole body shall be full of light. 성경구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네 눈이 단일하면, 네 온 몸이 빛으로 가득하게 될 것이라고.

The key word of this verse is “single.” 이 구절에서 중심단어는 “single”입니다.

By the way what is the meaning of the word “single” here? 그런데 여기서 “single”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According to Webster’s 1828 Dictionary, the definition of “single” is Pure; simple; incorrupt; unbiased; having clear vision of divine truth. 1828년 웹스터 사전에 따르면, 싱글의 정의는 순수한; 단순한; 부패되지 않은; 치우치지 않은; 거룩한 진리에 대한 분명한 통찰력입니다.

In order to more clarify the meaning of “single.” I will read Colossians 3:22 & 23. “single”의 의미를 더 명확히 알기 위해서, 골로새서 3:22-23절을 보겠습니다.

『Colossians 3:22-23』²² *Servants, obey in all things your masters according to the flesh; not with eyeservice, as menpleasers; but in singleness of heart, fearing God:* ²³ *And whatsoever ye do, do it heartily, as to the Lord, and not unto men;*

『골로새서 3:22-23』²² 종들아, 육체에 따라 너희의 주인 된 자들에게 모든 일에서 순종하되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자들같이 눈으로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단일한** 마음으로 하라. ²³ 또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As such, we have to focus on only our Lord Christ Jesus. 이와 같이,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In other words, our eyes can be single when we turn our eyes upon Jesus.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눈을 돌릴 때 우리의 눈이 단일하게 될 수 있습니다.

So this is one of the meanings of how to seek first the kingdom of God and his righteousness. 이것이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는 것의 의미 중의 하나입니다.

Let’s come back to Matthew 6. 마태복음 6장으로 돌아갑니다.

I will read verse 24. 24절을 읽겠습니다.

『Matthew 6:24』²⁴ *No man can serve two masters: for either he will hate the one, and love the other; or else he will hold to the one, and despise the other. Ye cannot serve God and mammon.*

『마태복음 6:24』²⁴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그가 한 주인을 미워하고 다른 주인을 사랑하거나 혹은 한 주인을 떠받들고 다른 주인을 업신여길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맘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You can see the word ‘mammon’ here. 여기에서 맘몬이라는 단어를 볼 수 있습니다.

According to Webster’s 1828 Dictionary, the definition of mammon is Riches; wealth; or the god or riches. 1828년 웹스터 사전에 따르면, 맘몬의 정의는 부자; 부; 혹은 신입니다.

Most people including me like money so much. 저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아주 좋아합니다.

And we want to be rich so much, don’t we? 우리는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However, God warns us that we cannot serve God and money!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돈을 함께 섬길 수 없다고 경고합니다.

Don’t get me wrong.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We could be rich by the grace of God while we are serving only God. 우리가 하나님 만을 섬기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부유하게 될 수 있습니다.

However, we must not serve mammon that is money. 그러나, 우리는 돈인 맘몬을 섬기지 말아야 합니다.

This is another meaning of how to seek first the kingdom of God and his righteousness. 이것이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는 것에 대한 또 다른 뜻입니다.

3 Food, clothing, and shelter 음식, 의복, 집

As you know, food, clothing, and shelter are our basic needs. 아시겠지만, 음식, 의복, 주거지는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As far as I know, all human beings are very sensitive to issues about food, clothing, and shelter. 우리가 아는 한, 모든 인간은 의, 식, 주에 대해 매우 민감합니다.

Now I'd like to continue to search the Biblical explanation of seeking first the kingdom of God and his righteousness in terms of our basic needs. 이제 우리의 기본적 욕구와 관련하여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는 것에 대한 성경적인 설명을 탐구해 보겠습니다.

Let's continue to read verses 25-32. 25-32절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Matthew 6:25』²⁵ *Therefore I say unto you, Take no thought for your life, what ye shall eat, or what ye shall drink; nor yet for your body, what ye shall put on. Is not the life more than meat, and the body than raiment?*

『마태복음 6:25』²⁵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생명을 위해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혹은 무엇을 마실까, 너희 몸을 위해 너희가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생명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I am sure that everybody here agrees with this verse. 모두가 이 구절에 분명히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The life is more important than food, clothing, and shelter. 생명은 의, 식, 주 보다 더 중요합니다.

However, there have been those who behave contrary to this truth. 하지만, 이 진리에 반하여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Let's go to Luke 12:13-21. 누가복음 12장 13-21절을 보겠습니다.

『Luke 12:13-21』¹³ *And one of the company said unto him, Master, speak to my brother, that he divide the inheritance with me. ¹⁴ And he said unto him, Man, who made me a judge or a divider over you? ¹⁵ And he said unto them, Take heed, and beware of covetousness: for a man's life consisteth not in the abundance of the things which he possesseth. ¹⁶ And he spake a parable unto them, saying, The ground of a certain rich man brought forth plentifully: ¹⁷ And he thought within himself, saying, What shall I do, because I have no room where to bestow my fruits? ¹⁸ And he said, This will I do: I will pull down my barns, and build greater; and there will I bestow all my fruits and my goods. ¹⁹ And I will say to my soul, Soul, thou hast much goods laid up for many years; take thine ease, eat, drink, and be merry. ²⁰ But God said unto him, Thou fool, this night thy soul shall be required of thee: then whose shall those things be, which thou hast provided? ²¹ So is he that layeth up treasure for himself, and is not rich toward God.*

『누가복음 12:13-21』¹³ 무리 중의 한 사람이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며, 내 형제에게 말씀하사 그가 나와 상속 재산을 나누게 하소서, 하니 ¹⁴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냐 나누는 자로 삼았느냐? 하시고 ¹⁵ 그들에게 이르시되, 탐욕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사람의 생명이 그의 풍부한 소유물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¹⁶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부자의 땅이 풍성하게 열매를 내매 ¹⁷ 그가 속으로 생각하여 이르되, 내 열매를 쌓아 둘 곳이 내게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¹⁸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 거기에 내 모든 열매와 물건을 쌓아 두고 ¹⁹ 또 내 혼에게 말하기를, 혼아, 네가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 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하리라, 하였느니라. ²⁰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 어리석은 자여, 이 밤에 네게서 네 혼을 요구하리니 그러면 네가 예비한 그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²¹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쌓아 두고 하나님께 대해 부요하지 못한 자는 이와 같으니라, 하시니라.

I think everybody here can understand what these verses mean.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이 구절이 뜻하는 바를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I will read last two verses once again. 마지막 두 구절을 다시 읽어 보겠습니다.

『Luke 12:20-21』²⁰ *But God said unto him, Thou fool, this night thy soul shall be required of thee: then whose shall those things be, which thou hast provided? ²¹ So is he that layeth up treasure for himself, and is not rich toward God.*

『누가복음 12:20-21』²⁰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 어리석은 자여, 이 밤에 네게서 네 혼을 요구하리니 그러면 네가 예비한 그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²¹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쌓아 두고 하나님께 대해 부요하지 못한 자는 이와 같으니라, 하시니라.

It is the individual soul that is the most important on this earth.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의 혼입니다.

No matter how rich you are, like Jeff Bezos, Bill Gates, Warren Buffet, Mark Zuckerberg, and Lee Kun-hee, 여러분이 아무리 부자라 할지라도, 제프 베조스, 빌 게이츠, 워렌 버핏, 마크 저커버그나 이견희 만큼 부자라고 해도,

your possessions are useless if your soul would go to Hell. 만일 여러분의 혼이 지옥에 가게 된다면, 여러분의 소유물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Let's come back to Matthew chapter 6. 마태복음 6장으로 돌아갑시다.

I will read verse 26. 26절을 읽겠습니다.

『Matthew 6:26』²⁶ Behold the fowls of the air: for they sow not, neither do they reap, nor gather into barns; yet your heavenly Father feedeth them. Are ye not much better than they?

『마태복음 6:26』²⁶ 공중의 날짐승들을 보라. 그것들은 씨 뿌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시나니 너희는 그것들보다 훨씬 더 낫지 아니하냐?

Yes, it is true that children of God are much better than animals like the fowls of the air.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공중의 새들과 같은 짐승들 보다 훨씬 더 낫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However, many Christians are worried about food, clothing and shelter, not believing God's care and protection. 그러나,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을 믿지 못한 채, 먹을 것, 입을 것, 잠잘 곳을 염려합니다.

Let's go to 1 Timothy 6:6-11. 디모데전서 6장 6-11절을 보겠습니다.

『1 Timothy 6:6-11』⁶ But godliness with contentment is great gain. ⁷ For we brought nothing into this world, and it is certain we can carry nothing out. ⁸ And having food and raiment let us be therewith content. ⁹ But they that will be rich fall into temptation and a snare, and into many foolish and hurtful lusts, which drown men in destruction and perdition. ¹⁰ For the love of money is the root of all evil: which while some coveted after, they have erred from the faith, and pierced themselves through with many sorrows. ¹¹ But thou, O man of God, flee these things; and follow after righteousness, godliness, faith, love, patience, meekness.

『디모데전서 6:6-11』⁶ 그러나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큰 이득이 되느니라. ⁷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아니하였은즉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 확실하니 ⁸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즉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니라. ⁹ 그러나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사람들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시험과 울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느니라. ¹⁰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이니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잘못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찢어 깨뜨렸도다. ¹¹ 그러나, 오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하나님의 성품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라.

As such, God stresses that godliness with contentment is great gain, (v. 6) 이렇게, 하나님은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큰 이득이 됨을 강조하십니다. (6절)

and that having food and raiment let us be therewith content, (v. 8) 그리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하라고 하십니다. (8절)

and finally that the love of money is the root of all evil. (v. 10) 그리고 마지막으로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임을 말씀하십니다. (10절)

So we should remember that God always fulfills our needs,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항상 채워 주심을 기억해야 하며,

and we should be careful for nothing. (Philippians 4:6)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4:6 절)

Let's come back to Matthew chapter 6. 마태복음 6장으로 돌아갑시다.

I will read verse 27. 27절을 읽겠습니다.

『Matthew 6:27』²⁷ Which of you by taking thought can add one cubit unto his stature?

『마태복음 6:27』²⁷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자기 키에 일 큐빗을 더할 수 있겠느냐?

The cubit is an ancient unit of length. 큐빗은 고대에 길이를 잴 때 쓰던 단위입니다.

Its definition ranged between around 45 and 53 centimeters or around 20 inches. 큐빗에도 여러 정의가 있는데, 약 45에서 53센티미터 혹은 20인치 정도를 나타냅니다.

The unit was based on the forearm length from the tip of the middle finger to the bottom of the elbow. 이 단위는 중지 손톱에서 팔꿈치 아래까지의 앞팔의 길이를 기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Medically speaking, growth hormone therapy or surgical limb lengthening could be done to children with short stature. 의학적으로 말해서, 키가 작은 아이들에게 성장 호르몬 치료법이나 다리를 길게하는 수술 치료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However, these medical managements can never increase the height up to one cubit. 하지만, 이러한 수술적 치료는 결코 일 큐빗까지 키를 늘릴 수 없습니다.

This means that humans are very very weak and very very limited. 이 말은 인간은 아주 아주 약하고 아주 아주 한계가 많다는 뜻입니다.

Let's continue to read verses 28 & 29. 28, 29절을 계속 읽겠습니다.

『Matthew 6:28-29』²⁸ *And why take ye thought for raiment? Consider the lilies of the field, how they grow; they toil not, neither do they spin: 29 And yet I say unto you, That even Solomon in all his glory was not arrayed like one of these.*

『마태복음 6:28-29』²⁸ 또 너희가 어찌하여 옷을 위해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깊이 생각해 보라. 그것들은 수고도 아니 하고 길쌈도 아니 하느니라. ²⁹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기의 모든 영광 중에 있던 솔로몬도 이것들 중 하나와 같이 차려입지 못하였느니라.

King Solomon was not more beautiful than a lily, even if he would decorate himself the best, sitting on his throne. 솔로몬 왕은 비록 최고로 자신을 치장하고, 왕좌에 앉아 있었지만 들의 백합보다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In other words, it is the best for us to be arrayed by God.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차려입혀 주신 것이 우리에게 최고입니다.

So, we should cast all our care upon Him; for He careth for us. (1 Peter 5:7)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염려를 그 분께 맡겨야 합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5:7)

Let's continue to read verse 30. 30절을 계속 보겠습니다.

『Matthew 6:30』³⁰ *Wherefore, if God so clothe the grass of the field, which to day is, and to morrow is cast into the oven, shall he not much more clothe you, O ye of little faith?*

『마태복음 6:30』³⁰ 그러므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물며 너희는 더 잘 입히지 아니하시겠느냐?

Let me ask you a question.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To whom did God say in this verse? 하나님께서 이 구절을 누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God said to those of little faith. 하나님은 믿음이 적은 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Not to those who don't have any faith, but to those who have little faith. 믿음이 전혀 없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이 적은 자들에게 하셨습니다.

So they could be Christians who are worried about the future, not believing God's care and protection totally.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을 완전히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미래를 걱정하는 크리스찬입니다.

However, we should know and believe that God always takes care of His children.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자신의 자녀들을 돌보아 주심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Let's continue to read verses 31 & 32. 31, 32절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Matthew 6:31-32』³¹ *Therefore take no thought, saying, What shall we eat? or, What shall we drink? or, Where-withal shall we be clothed? 32 (For after all these things do the Gentiles seek:) for your heavenly Father knoweth that ye have need of all these things.*

『마태복음 6:31-32』³¹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³²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나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줄 아시느니라.

Let me ask you a question again. 질문을 또 하나 드리겠습니다.

According to these verses who do you think seek food, clothing, and shelter? 이 구절에 따르면, 먹을 것, 입을 것, 잠잘 곳을 구하는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Yes, Gentiles who do not know God, seek all these things.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이것들을 구합니다.

This is one of the characteristics of Gentiles or Heathen who serve Mammon instead of God. 이것은 하나님 대신 mammon을 섬기는 이방인들의 특징 중의 하나입니다.

On the other hand, we Bible believers can also ask our basic needs to God when we need them. 반면에,

성경신자인 우리는 우리의 기본적인 필요를 필요할 때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However, this can not be our priority unlike non-believers. 하지만, 믿지않는 사람들처럼 이것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될 수 없습니다.

Aside from this, we have seen cases in which God does not seem to take care of His children at all. 이와 다르게,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전혀 돌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예들도 있습니다.

Let's go to Hebrews 11:36-38. 히브리서 11장 36-38절을 보겠습니다.

『Hebrews 11:36-38』³⁶ *And others had trial of cruel mockings and scourgings, yea, moreover of bonds and imprisonment: ³⁷ They were stoned, they were sawn asunder, were tempted, were slain with the sword: they wandered about in sheepskins and goatskins; being destitute, afflicted, tormented; ³⁸ (Of whom the world was not worthy:) they wandered in deserts, and in mountains, and in dens and caves of the earth.*

『히브리서 11:36-38』³⁶ 또 다른 이들은 심한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참으로 또한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겪었으며 ³⁷ 돌로 맞기도 하고 톱으로 잘리기도 하며 시험을 받기도 하고 칼로 죽임을 당하기도 하며 양 가죽과 염소 가죽을 입고 떠돌아다니며 궁핍과 고난과 고통을 당하였으니 ³⁸ (세상은 이런 사람들에게 합당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이 사막과 산과 동굴과 땅굴에서 떠돌아다녔느니라.

As such, many ancestors of faith were afflicted, tormented, and slain. 이처럼, 많은 믿음의 조상들은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받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Tradition states that the prophet Isaiah was 'sawn asunder' during the reign of King Manasseh. 이사야 선지자는 므낫세 왕 통치 때 톱으로 잘렸다고 합니다.

My maternal grandfather was killed by communists for the faith of Jesus Christ. 제 외할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공산주의자들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Christians are not persecuted or even murdered because God does not take care of them.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지 않기 때문에 박해를 받거나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The reason why God allows His children to be afflicted or even martyred is that it could be good for them.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이 고통을 받거나 심지어 순교를 당하는 것까지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것이 그들에게 유익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Let's read Psalm 119:71 & Hebrews 13:6. 시편 119:71절과 히브리서 13:6절을 읽겠습니다.

『Psalms 119:71』⁷¹ *It is good for me that I have been afflicted; that I might learn thy statutes.*

『시편 119:71』⁷¹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하오니 이로써 내가 주의 법규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Hebrews 13:6』⁶ *So that we may boldly say, The Lord is my helper, and I will not fear what man shall do unto me.*

『히브리서 13:6』⁶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사람이 내게 무엇을 행하든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하노라.

Let's come back to Matthew 6. 마태복음 6장으로 돌아갑니다.

I will read verse 33 which is the answer to the question "What should we seek first?" the title of this sermon. 오늘 설교 제목인 우리는 제일 먼저 무엇을 추구해야 하나? 라는 질문에 대답이 되는 3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Matthew 6:33』³³ *But seek ye first the kingdom of God, and his righteousness; and all these things shall be added unto you.*

『마태복음 6:33』³³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Here are two different objectives for us to seek first. 여기에 우리가 첫째로 추구할 두 가지의 대상이 있습니다.

The first is the kingdom of God, 첫 번째는 하나님의 왕국이고,
and the second is His righteousness. 두 번째는 그분의 의입니다.

Although we have already searched the meaning of this verse through Matthew chapter 6 verses 19 through 32, 우리는 이미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2절까지를 보면서 이 구절의 의미를 탐구해 왔지만,

Now I want to explain the kingdom of God and his righteousness in more detail. 저는 이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보다 자세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4 The kingdom of God and His righteousness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

The Kingdom of God is His reign in the universe for all His creation including time, space and matter (Genesis 1:1). 하나님의 왕국은 시간과 공간 그리고 물질을 포함하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의 모든 것을 그분께서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By the way the kingdom of God is sometimes confused with the kingdom of heaven. 그런데 하나님의 왕국을 하늘의 왕국과 혼동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So I will explain the kingdom of God by comparing it with the kingdom of heaven.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을 하늘의 왕국과 비교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The kingdom of heaven appears only in the Gospel of Matthew, whereas the kingdom of God is revealed in four Gospels and in Acts. 하늘의 왕국은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반면, 하나님의 왕국은 4복음서와 사도행전에 등장합니다.

Compared with the kingdom of heaven, the kingdom of God has all the universal characteristics including the earth (Hebrews 12:22-23), 하늘의 왕국과 비교하여, 하나님의 왕국은 지구를 포함한 모든 우주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22-23).

and also has the concept of new creation related to new heaven and new earth (2 Peter 3:13; Revelation 21:1-2; 22:1-2). 그리고 또한 새 하늘과 새 땅과 연관된 새로운 창조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13; 요한계시록 21:1-2; 22:1-2).

Although there are differences between heaven and God, these two terms were often used without distinction in the Bible, 비록 하늘과 하나님 사이에 차이는 있지만, 이 두 단어는 성경에서 구분 없이 자주 사용됩니다.

especially because the Jews intended to substitute God with the heaven where God is (Luke 15:18;21). 특별히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로 바꾸어 사용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5:18;21)

So these two kingdoms are the kingdoms ruled by God in heaven, 그래서 이 두 왕국은 하늘에서 하나님에 의해 통치되는 왕국입니다.

but the kingdom of heaven more emphasizes the earthly kingdom of the Messiah, 하지만 하늘의 왕국은 메시아의 지상왕국을 더 강조하고,

and the kingdom of God is the whole universal kingdom including the kingdom of heaven (cf. Matthew 3:2 and Mark 1:15; Matthew 5:1-12 and Luke 6:20-23; Matthew 13:11 and Luke 8:10). 하나님의 왕국은 하늘의 왕국을 포함한 온 우주의 왕국입니다 (비교. 마태복음 3:2와 마가복음 1:15; 마태복음 5:1-12와 누가복음 6:20-23; 마태복음 13:11과 누가복음 8:10).

The kingdom of God is spiritual and invisible (Luke 17:20-21), 하나님의 왕국은 영적이고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7:20-21).

so only those born in heaven by new birth can enter it (John 3:5). 그래서 새롭게 다시 태어난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5)

According to Romans 14:17, 로마서 14:17절에 따르면,

『Romans 14:17』¹⁷ For the kingdom of God is not meat and drink; but righteousness, and peace, and joy in the Holy Ghost.

『로마서 14:17』¹⁷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 나라.

As such, the kingdom of God is equal to His righteousness. (Genesis 15:6; Micah 6:5; Romans 1:17; 3:21,22; 10:3; 2 Corinthians 5:21; 2 Peter 1:1) 이와 같이, 하나님의 왕국은 그분의 의와 동일합니다 (창세기 15:6; 미가서 6:5, 로마서 1:17; 3:21,22; 10:3; 고린도후서 5:21; 베드로후서 1:1)

So to speak, the kingdom of God must be full of His righteousness. 말하자면, 하나님의 왕국은 그분의 의로 가득차야 합니다.

Let me ask you a couple of questions.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Firstly, do you think you are righteous? 첫째, 여러분은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십니까?

Secondly, if you think so, how much do you think you are righteous? 둘째, 만일 그렇게 생각한다면, 자신이 얼마나 의롭다고 생각하십니까?

Let's read Romans 3:10. 로마서 3:10절을 보겠습니다.

『Romans 3:10』¹⁰ *As it is written, There is none righteous, no, not one:*

『로마서 3:10』¹⁰ 이것은 기록된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Scripture clearly states that there is none righteous, no, not one! 성경은 의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분명히 적고 있습니다!

I want to read one more verse that shows our status in terms of the righteousness. 의와 관련하여 우리의 상태를 보여주는 구절을 한 개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Let's read Matthew 5:20. 마태복음 5:20절입니다.

『Matthew 5:20』²⁰ *For I say unto you, That except your righteousness shall exceed the righteousness of the scribes and Pharisees, ye shall in no case enter into the kingdom of heaven.*

『마태복음 5:20』²⁰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를 능가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결코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As you know Pharisees were those who were seeking the perfect righteousness in their sights. 아시다시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보기에 완벽한 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According to Luke 18:11 & 12, Pharisees were “not extortioners, unjust, adulterers, but fasted twice in the week, gave tithes of all that they possess.” 누가복음 18:11-12절에 따르면, 바리새인들은 “착취하는 자도 아니요, 불의한 자와 간음하는 자도 아니고 일 주일에 두 번 금식하고 모든 소유의 십일조를 드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So, it is impossible for us to have the righteousness which exceeds [the righteousness] of the scribes and Pharisees. 그래서, 우리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능가하는 의를 갖기는 불가능합니다.

In other words, no one can enter into the kingdom of heaven by his or her own righteousness. 다시 말해서, 그 누구도 자기 자신의 의로 인해 하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If so, what is the righteousness exceeding [the righteousness] of the scribes and Pharisees? 그렇다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를 능가하는 의로움은 무엇이 있습니까?

And how can we get this supreme or perfect righteousness? 어떻게 우리가 이 최고의 완벽한 의를 얻을 수 있습니까?

Let's read Romans 3:21-24. 로마서 3:21-24절을 읽겠습니다.

『Romans 3:21-24』²¹ *But now the righteousness of God without the law is manifested, being witnessed by the law and the prophets;* ²² *Even the righteousness of God which is by faith of Jesus Christ unto all and upon all them that believe: for there is no difference:* ²³ *For all have sinned, and come short of the glory of God;* ²⁴ *Being justified freely by his grace through the redemption that is in Christ Jesus:*

『로마서 3:21-24』²¹ 그러나 이제는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 곧 율법과 대언자들이 증언한 의가 드러났느니라. ²²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고 믿는 모든 자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의니 거기에는 차별이 없느니라. ²³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²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救贖)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As such, we all are sinners and come short of the glory of God, 이처럼, 우리는 모두 죄인이며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하며,

and deserve to go to Hell or Lake of Fire. 지옥, 불호수에 가야 마땅합니다.

However, Jesus Christ died in our place when He was crucified on the cross.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Christ took the punishment of eternal damnation on Himself in our place. 그리스도는 영원한 저주의 형벌을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이 짊어지셨습니다.

So the righteousness of God came to be manifested on the cross at Calvary.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In other words, Jesus became SIN for us so that we might be made the righteousness of God in him.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었습니다.

Let's read 2 Corinthians 5:21. 고린도후서 5:21절을 읽겠습니다.

『2 Corinthians 5:21』²¹ *For he (God) hath made him (Jesus) [to be] sin for us, who knew no sin; that we might be*

made the righteousness of God in him (Jesus).

『고린도후서 5:21』²¹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Praise the Lord for that!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This is purely the Grace of God. (Philippians 3:9) 이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빌립보서 3:9).

By the way why does God give us His righteousness only by His grace?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은혜로만 우리에게 자신의 의를 주시는 것일까요?

Let's go to Romans 3:25. 로마서 3:25절을 보겠습니다.

『Romans 3:25』²⁵ Whom (Jesus) God hath set forth to be a propitiation through faith in his blood, to declare his righteousness for the remission of sins that are past, through the forbearance of God;

『로마서 3:25』²⁵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화해 헌물로 제시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으심을 통해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심으로써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려 하심이요,

This means that God's righteousness is given to those whose sins are forgiven and taken away by the innocent blood of Jesus that was shed on the cross at Calvary. 이것은 죄들의 용서를 받은 자들,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무죄한 피에 의해 죄들이 씻겨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주어진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Let's continue to read verse 26 of the same chapter. 계속해서 같은 장 26절을 보겠습니다.

『Romans 3:26』²⁶ To declare, I say, at this time his righteousness: that he might be just, and the justifier of him which believeth in Jesus.

『로마서 3:26』²⁶ 내가 말하거니와 이때에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사 자신이 의롭게 되며 또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게 만드는 이가 되려 하심이라.

This means that God's righteousness is declared on the cross where God's justice met God's love and these two were satisfied at the same time. 이것은 하나님의 의가 십자가 위에서 선포되었는데,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사랑과 만났으며, 이 둘이 동시에 만족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In short, God's righteousness equals the death of Jesus Christ on the cross. 짧게 말하면, 하나님의 의는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동일합니다.

So to speak, God's righteousness is given to everybody who receives Jesus Christ as his or her own personal Savior and the Lord. 말하자면,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개인적인 구원자와 주로 받아들인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Now I want to illustrate the righteousness by using Chinese words. 이제 한자를 사용해서 의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Let's take a look at the slide. 슬라이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手 + 戈 = 我 + 羊 = 義

hand lance me sheep righteousness

손 수 + 창 과 = 나 아 + 양 양 = 옳을 의

The word for righteousness 義 appears to have been derived from this original act of worship, asking forgiveness for sin. 옳을 의 자는 원래 죄의 용서를 구하는, 예배의 행위에서 도출된 글자로 보입니다.

A sheep 羊 is found in this figure, and beneath it, 我, picturing I, me, we kneeling before the Lamb of God, who alone covers me and brings righteousness. 이 글자의 윗 부분에 양 양 자가 있고 아래에는 나를 뜻하는 아 자기 있는데,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의를 주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앞에 무릎꿇고 있는 모습입니다.

Further dissection of this last character for me reveals a composite hand 手 and a lance or spearhead 戈. 나 아 자를 더 분해해 보면, 손 수 자와 창 과 자가 합성된 단어임을 알 수 있습니다.

This specifies that the slaying of the lamb is by me, by my own hand, using a spearhead, indicating that my sins would bring death to the innocent Lamb of God. 이것은 어린 양의 죽음이 나에 의해, 내 자신의 손에 의해 창에 찔려 죽었음을 묘사하고 있는데, 내 죄가 무죄한 하나님의 어린 양의 죽음을 가져왔다는 것은 나타내고 있습니다.

As the result of this action the innocent blood of the Lamb of God which is Jesus, could be shed in order for you and me to be saved. (Matthew 27:4; John 1:29)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무죄한 피를 흘리신 결과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7:4; 요한복음 1:29).

5 Conclusion 결론

Now I will summarize and conclude. 이제 요약하고 마치고 하겠습니다.

Practically speaking, 실천적인 측면에서 말해서,

we Christians should lay up for ourselves treasures in heaven,

우리 크리스찬은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야 합니다.

we should make our eyes be single, focusing on only Jesus,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눈을 단일하게 해야 합니다,

we should not serve mammon which is money, 우리는 맘몬, 즉 돈을 섬기지 말아야 합니다,

we should not be careful for food, clothing and shelter. 우리는 먹을 것, 입을 것, 잠잘 곳을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Theologically speaking, 신학적으로 말해서,

we should know that the kingdom of God and His righteousness are given to everybody who receives Jesus Christ as his or her own personal Savior and the Lord.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개인적 구원자와 주로 받아들인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Therefore, we should continue to praise the Lord for that!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에 대해 계속해서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I will finish by reading today's main verses (Matthew 6:33 & 34): 오늘의 주 성경 구절인 마태복음 6:33,34 절을 읽고 마칩니다.

『Matthew 6:33-34』³³ *But seek ye first the kingdom of God, and his righteousness; and all these things shall be added unto you.* ³⁴ *Take therefore no thought for the morrow: for the morrow shall take thought for the things of itself. Sufficient unto the day is the evil thereof.*

『마태복음 6:33-34』³³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³⁴ 그러므로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이 자기 것들을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악은 그 날에 족하니라.

Let's pray. Father, thank you so much for your infinite grace to save us. I earnestly beg that you will always anoint us with Holy Spirit and power. And please help us to seek first your kingdom and your righteousness until the Lord comes again. In Jesus' name I pray. Amen.